

국내 인물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서비스에 관한 비교 분석

A Comparative Study about Construction and the Service of the Domestic Biographical Database

한 상 길(Sang-Kil Han)*

< 목 차 >

I. 서론	1. 수록정보
II. 인물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서비스 현황	2. 프로파일 등록 방법 및 내용
1. 인물데이터베이스의 의의와 발전	3. 검색 방법
2. 인물데이터베이스의 활용	IV. 인물데이터베이스의 문제점 및 개선 방안
3. 국내 인물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현황	1. 문제점
III. 인물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검색방법 분석	2. 개선방안
	V. 결론

초 록

인물데이터베이스는 우리나라에서 제작되어 서비스 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중 유료화가 가장 먼저 이루어졌고, 현재 활발히 서비스 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이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 인물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인물데이터베이스 구축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검색항목 및 검색 방법을 비교분석한다. 이를 토대로 인물데이터베이스의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다. 그 대표적인 방안 중의 하나가 인물데이터베이스 구축에서 시소러스를 이용한 용어관계와 인물 속성데이터를 이용하는 것이다.

키워드 : 인물정보, 데이터베이스, 검색항목, 속성 데이터

ABSTRACT

The person information is a database given free most lively. This study investigates the construction of the domestic person information database and the service present situation. And I compare a search item and a search method with problems for the biographical database construction process and analyze it. I analyze the problems of the person information database and show the person idea who can solve this. I use term relations and the attribute data of the person which used thesaurus by biographical database construction with this purpose.

Keywords : Person Information, Biographical Databases, Search Item, Attribute Data

* 대림대학 문헌정보과 부교수(skhan@daelim.ac.kr)

• 접수일: 2008년 11월 21일 • 최초심사일: 2008년 11월 25일 • 최종심사일: 2008년 12월 22일

I. 서론

현재 우리나라에서 제작되어 서비스 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 중 유료화가 가장 먼저 이루어졌고, 활발히 서비스 되고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인물정보이다. 인물데이터베이스는 공공기관이나 회사에서 업무 목적을 위해서도 이용하지만, 일반인도 자신의 관심이나 흥미 등에 따라 많이 이용하고 있다. 이처럼 인물데이터베이스는 많은 사람이 관심을 갖고 있지만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내용은 대부분 인쇄형태로 발행하던 인명록을 데이터베이스로 전환하여 서비스하던 초기와 비교해서 별로 개선된 점이 없이 초기에 개발된 형태 그대로 서비스하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또한 대부분의 인물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입력항목이나 검색항목도 대동소이한 편이다. 물론 인물데이터베이스는 단시간에 많은 돈을 투자한다고 해서 만들어질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오랜 기간의 노력에 의해서 만들어 지는 것이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다.

인터넷의 급속한 확산과 더불어 데이터베이스 서비스는 급속도로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웹을 통해 서비스 되고 있는 홈페이지나 유사분야나 주제를 다루는 데이터베이스에 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웹 서비스에서 많은 이용자를 가지고 있고, 유료 정보서비스의 대표적인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는 인물에 대한 연구는 미흡한 편이다. 국내에서 서비스 되고 있는 4개 기관의 인물데이터베이스에 대한 인물정보원 분석을 실시한 연구¹⁾와 우리나라에서 생산되는 온라인 인물데이터베이스를 이용자 불만족 요인을 기초로 분석 평가한 연구²⁾뿐인 실정이다.

웹을 통하여 이용하는 데이터베이스는 정보량의 증가에 따라 이용자가 늘어나면 그만큼 이용자는 보다 다양한 정보요구를 하게 된다. 그러나 과거와 같은 단순한 방식으로 검색하게 한다면 이용자는 만족할 수 없게 된다.

인물정보는 이용자의 요구를 만족시키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기능에 충실해야 한다. 하나는 이용자가 원하는 인물정보를 쉽고 편리하게 검색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이용자가 찾고자 하는 인물에 관한 보다 정확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한다. 전자가 접근점에 해당한다면 후자는 물리적 기술 내용을 알려주는 식별기능이라고 할 수 있겠다. 좋은 데이터베이스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두 가지 기본적인 기능을 충실히 수행 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충실한 데이터의 입력과 다양한 검색방법을 제공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인물데이터베이스도 과거의 단순한 항목 검색방식을 탈피하여 보다 다양한 기능을 수행할 수 있다면 이용자는 보다 편리하고 쉽게 이용할 수 있고,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를 확인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인물정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필요하다.

1) 박준식, 박경호, "한국 웹 기반 인물 정보원의 분석적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35권, 제1호(2001. 3), pp.187-203.
2) 장혜란, "우리나라 온라인 인물데이터베이스의 비교평가 연구,"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 제32권, 제4호(2001. 12), pp.283-302.

본 연구에서는 국내의 인물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서비스 현황을 살펴보고, 인물데이터베이스 구축과정에 대한 문제점과 검색항목 및 검색 방법을 비교분석한다. 우선 국내 인물데이터베이스의 현황을 종합하여 인물데이터베이스와 전문주제인물데이터베이스에 관하여 인터넷을 이용해 조사하였다. 다음으로 문제점 분석에서는 데이터베이스 수록정보와 프로파일 내용, 그리고 검색방법 등을 비교했다. 비교 대상은 수록 프로파일 내용은 20만 건 이상을 수록하고 있는 JOINS, 조선, 동아 일보의 인물 데이터와 연합뉴스, 그리고 로마켓을 중심으로 했다. 검색 비교에서는 포털사이트인 네이버를 포함시켰다.

이를 토대로 바람직한 인물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II. 인물데이터베이스의 구축과 서비스 현황

1. 인물데이터베이스의 의의와 발전

인물정보는 전기정보원에 해당한다. 전기정보원이란 아이디어, 활동, 발명이나 발견, 집필 등 여러 면에서 자신을 성취하였거나 사회에 현격한 공헌을 한 생존 인물에 관해서는 물론이고,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들에 대해서도 알고 싶어 하는 각계의 욕구를 만족시키기 위하여 만든 것이다. 넓은 의미에서 본다면 전기류에 속하는 자료는 일기 형식, 회상록, 서한 등의 대단히 비공식적이고 개인적인 자료에서부터 자서전, 그리고 학술적이고 과학적인 방법에 근거해서 입증을 거쳐 문서화된 공식적 자료에 이르기 까지 그 수준과 내용이 다르다.³⁾ 이 중 인물정보원으로 중요하게 사용되어 온 것이 전기사전과 인명록이었다. 이러한 인물정보원은 인쇄본, CD-ROM, 온라인 등 기술의 발전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도 다양하게 변화해 왔다. 그리고 1990년대 인터넷의 발전과 더불어 웹을 통해서도 다양한 인물정보를 손쉽게 획득할 수 있게 되었다.⁴⁾

인물데이터베이스란 사회 각계에서 활동하고 있는 주요인사의 이력에 관한 정보를 축적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를 말한다. 또한 데이터베이스의 종류에서 본다면 백과사전, 언어사전, 명감, 연감, 지명정보, 통계자료 데이터베이스 등과 함께 사실 정보 데이터베이스라고 할 수 있다⁵⁾. 우리나라의 인물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배경은 크게 다음의 4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 번째는 언론사나 출판사, 그리고 특정주제 분야의 기관단체에서 인명록을 출판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인명사전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화 시킨 것이다. 이것은 연합뉴스의 부록인 '한국인물사

3) 노옥순, 참고봉사와 참고정보원(서울 : 이화여자대학교 출판부, 1997), p.210.

4) 박준식, 박경호, 전기논문, p.188.

5) 정진식 외, 디지털도서관 정보서비스(서울 : 한국도서관협회, 2002), p.194.

전'을 작성하기 위한 연합뉴스의 인물데이터베이스와 '동아연감(동아일보사)'을 위해 만들어진 동아일보 인물데이터베이스가 여기에 해당된다. 이외에도 '한국교육연감(한국교육신문사),' '전국대학교수명부(한국대학교육신문사),' '상장회사 경영인명록(한국상장회사협의회),' '한국경제연감(전국경제인연합회),' '한국법조인대감(법률신문사)' 등이 있다.

두 번째로는 언론사에서 기사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만든 것이다. 단순한 취재에 의한 기사에서 벗어나 보다 분석적이고 심층적인 기사를 제공하기 위해서 구축하기 시작한 인물데이터베이스로 중앙(JOINS), 조선, 연합뉴스 등의 언론사 인물데이터베이스가 이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다.

세 번째로는 국가기관 등에서 인력관리를 위해 구축한 데이터베이스가 있다. 한국 학술진흥재단의 통합연구 인력정보데이터베이스나 과학기술인력 데이터베이스, 중앙인사위원회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등이 여기에 속한다.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해 2000년에는 정부에서도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운용규정⁶⁾을 제정하여 인물정보를 수집하여 합리적인 인사정책의 수립에 활용하고 있다.

마지막으로는, 인터넷 확산 이후에 완전히 인터넷 서비스로 제공하기 위해 구축된 것이 있다. 여기에는 네이버, 엠파스 등의 인터넷 포털사이트의 인물데이터베이스와 로마켓과 같은 전문 데이터베이스 회사의 인물정보 서비스가 해당한다. 그러나 인터넷 포털은 일반 이용자가 많이 요구하는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 등의 인기인 위주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나머지는 전문데이터베이스의 인물정보를 서비스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2. 인물데이터베이스의 활용

다른 사람의 삶, 생애에 대한 흥미는 만인 공통적인 것⁷⁾으로 개인의 이력을 포함하는 인물데이터베이스는 학생들의 과제해결, 일상생활에서 생기는 지적 호기심의 충족, 그리고 특정 업무나 연구를 위한 사전 지식을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되고 있다.⁸⁾ 하지만, 무엇보다도 인물데이터베이스의 중요한 관점은 정부기관에서 인사 작업의 기초로 사용하거나 기업에서 영업활동이나 로비를 위해 인물정보를 이용하는 경우가 더 많다고 할 수 있다.

인사를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되는 대표적인 예가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이다. 이것은 적재적소에 인재활용을 기하기 위하여 중앙인사위원회에서 운영하는 우리사회의 주요 인재들에 대한 인물데이터베이스이다.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에 수록되어 있는 각 개인별 인물정보의 주요 내용은 학력, 경력, 업적, 활동사항, 외국어 능력 등 다양한 개인의 능력과 자격에 관한 사항들이다. 이러한

6) 대통령훈령, 제89호(2000. 3. 24 제정).

7) 박은자, 정보원과 정보이용 : 질적 정보 이용안내(서울 : 아세아문화사, 2000), p.217.

8) 장혜란, 전계논문, p.285.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를 구축·운영하는 취지를 한마디로 간략히 말하자면 인사의 공정성과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즉, 특정 업무를 담당할 인물을 임용함에 있어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해서 그 직위에 요청되는 자격과 능력을 구비한 인재들의 자료목록을 인사권자에게 제공하고, 그러한 객관적인 자료들을 근거로 하여 인사가 이루어지면 보다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가 될 수 있다는 취지에서 추진하고 있다.⁹⁾

특히 최근에 노무현 전 대통령이 퇴임하면서 총리와 장·차관 등 최고위직 인사를 포함한 정부직 공무원에 대한 인사검증 보고서(존안 파일)와 고위 공무원에 대한 최신 인물데이터베이스를 유출한 사건¹⁰⁾이 도마 위에 오르면서 인물데이터베이스의 중요성이 새삼 부각되고 있다.

한편, 언론사 인물데이터베이스는 기사 작성을 보조하는 참고 도구에 그치지 않고 점차 심층보도를 하는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대표적인 예로써 중앙일보의 대학평가 작업에 인물데이터베이스를 도입하여 한국을 움직이는 지도급 인사들의 출신대학 분포를 보도¹¹⁾한 것과 같은 것이다. 이것은 취재력과 데이터베이스의 정보 분석력이 결합한 시너지 효과라고 할 수 있다.

일상적인 관심과 호기심 혹은 개인적인 필요에 의해서 인물검색을 하는 경우도 많다. 이를 위해서는 조사대상 인물의 기본 프로필을 조사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인물에 대한 기본 프로필은 'Marquis Whos Who'나 'S&P Executives', 일본의 경우는 'Japan Who'나 'Prize' 등의 데이터베이스를 통해서 조사하는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이지만, 이들 데이터베이스는 주로 주요 정치인이나 과학자, 문필가, 언론가, 경제인, 기업인, 학자 등을 대상으로 하고 있어¹²⁾ 단순한 지적 호기심에 대응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는 부족한 실정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일부 포털사이트에서 연예인이나 스포츠 스타의 인물정보를 구축하고 있어 이러한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3. 국내 인물데이터베이스 서비스 현황

가. 종합 인물데이터베이스

민간부분의 인물데이터베이스는 주로 언론사에서 이루어진다. 초창기 인물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목적은 언론사에서 기사 작성을 보조하는 데이터베이스로 구축되었다. 그러나 인물정보의 필요성을 인식하기 시작한 기업이 이를 요구하게 되었고, 기업 제공 서비스에서 출발한 인물정보 서비스는 인터넷 이용의 보편화에 따라 점차 일반에게도 공개되기 시작했다.

국내의 규모가 큰 언론사에서는 대부분 자체 인물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그러나 인터넷

9) 중앙인사위원회, 국가인재DB 정보 콘텐츠 체계화 방안 연구(서울 : 동위원회, 2006), p.2.

10) 배성규, "40만명 인사자료 '봉하마을'로 유출," 조선일보, 2008. 6. 16. 1면.

11) 중앙일보사, 중앙일보 30년사(서울 : 중앙일보사, 1995), pp.675-676.

12) 이종연, 어느 정보사냥꾼의 고백(서울 : 문예마당, 1996), p.22.

으로 서비스하고 있는 기관은 중앙일보(JOINS), 조선일보, 동아일보, 연합뉴스, 한국경제신문사 뿐이다. 언론사 이외의 인물정보는 중앙인사위원회(현재는 행정안전부 소속)의 국가인재 데이터베이스와 법률인 인물데이터베이스를 전 영역으로 확대한 로마켓의 인물정보 등이 있다.

JOINS 인물정보는 국내 언론사 최초로 1985년 구축해서 1995년부터 서비스를 시작한 인물데이터베이스이다. 이 데이터베이스에는 국내 각계 주요 인사 약 30만 명의 인물 프로필과 사진을 수록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중앙일보를 비롯한 중앙일보 미디어 네트워크(JMN)의 각종 매체 제작에 활용하고 JOINS 인물정보 페이지를 통해 유료 서비스되고 있다. 또한 네이버, 엠파스 등 JOINS 닷컴과 제휴한 인터넷 포털 서비스와 천리안 등 JOINS 닷컴이 CP로 참가하고 있는 PC통신서비스에도 제공하고 있다.

조선일보 인물정보는 국내 주요인사 28만여 명의 인물프로필 정보가 수록되어 있다. 언론 데이터뱅크 hiDB를 구축하여 2000년 1월부터 조선일보 홈페이지를 통해서 서비스하고 있는데, 서비스 방식은 유료상세, 무료상세, 목록정보의 3단계로 나뉘어져 있다. 인물검색 후 보여 지는 인물 기본 정보 예를 들어, 이름, 현직, 생년월일 등은 무료이나 프로필 상세정보는 조회 1건당 1000원이 부과된다. 결제 방법으로는 신용카드, 계좌이체, 핸드폰, 전화결제를 이용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동아일보, 연합뉴스, 한국경제신문의 인물데이터베이스와 매일신문의 '매일명감' 등이 있다. 이중 동아일보 인물데이터베이스는 전직과 현직 구분이 확실하고, 동아닷컴 회원으로 가입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검색은 일반검색과 상세검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별도로 역사인물과 역대 수상자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연합뉴스의 인물데이터베이스는 정관계, 대학, 금융, 법조, 군인, 언론, 문화예술, 연예, 의료인 등의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하고 있고, 한국경제신문 인물데이터베이스는 경제계 인사를 대상으로 재계의 임원급 이상, 경제관련 부처의 과장급 이상, 정계의 광역단체장 이상을 포함하고 있다. 매일신문의 매일명감은 대구 경북을 움직이는 지역인사 및 출향 인사의 인물정보를 수록하고 있으며, 약 9,000여건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다.

한편 행정안전부의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는 1999년도부터 사회 각 분야에서 두루 활동하고 있는 저명한 민간전문가 및 고위 공무원, 정부산하단체 임원, 정부위원회 위원들의 인물정보를 수록한 것이다. 이 데이터베이스에 축적된 자료는 장·차관 등 정무직 공무원, 각종 국가고시 시험위원, 선발심사위원, 각 부처의 정부위원회 위원 및 정책자문위원 위촉, 개방형 직위 등 각종 공직 인사 위촉 및 임용 시 해당 직위에 적합한 자격과 능력을 갖춘 인재들을 발굴, 추천하기 위한 용도로 사용하고 있다. 이외에도 선거철 출마자만을 대상으로 구축되었다가 사라지는 데이터베이스와 같이 만들어진 후 필요시 일시적으로 구축되는 데이터베이스도 있다.

〈표 1〉은 국내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대표적인 종합 인물데이터베이스 일람이다. 여기에서 제시된 수록 건수는 인터넷에 제시하고 있는 숫자일 뿐이며, 정확한 통계수치는 밝히지 않고 있다. 따라서 전체적으로는 각 개별 데이터베이스 구축기관의 수록인 통계나 갱신 빈도 등은 정확하게 알 수

없다. 경쟁적 관계에서 데이터 건수를 부풀려 알려주는 경우가 많이 때문이다.

〈표 1〉 국내 종합 인물데이터베이스

데이터베이스명	운영기관	주요 수록내용	구축규모	비고
JOINS 인물데이터베이스 ¹³⁾ <http://people.joins.com>	중앙일보사	사진/기본/학력/경력/저서/논문/상훈	약30만건	유료
조선일보 인물데이터베이스 <http://www.chosun.com/national/people>	조선일보사	사진/기본/학력/경력/저서/논문/상훈	약28만건	유료
동아일보 인물데이터베이스 <http://www.donga.com/inmul>	동아일보사	사진/기본/학력/경력/저서/논문/상훈/가족사항	약 3만건	유료
매일명감 <http://www.imaail.com/maeilpeople/>	매일신문사	사진/기본/학력/경력/저서/작품/상훈	약7,000건	무료
여성전문인물데이터베이스 <http://www.kwdi.re.kr/kw_info/special_search.jsp>	한국여성개발원	기본/학력/전문분야	총9,022건	무료
연합뉴스 인물데이터베이스 <http://www.yonhapnews.co.kr/>	연합뉴스사	사진/기본/학력/경력/저서/작품/상훈	-	유료
한국경제신문 인물데이터베이스 <http://people.hankyung.com>	한국경제신문사	사진/기본/학력/경력/저서/논문/상훈	약30만건	유료
사외이사 인력뱅크 <http://www.outside-director.or.kr>	한국상장회사협의회	기본/경력	총708건	무료
코스닥인물정보 <http://www.kosdaqca.or.kr/Front/search/peopleset.asp>	코스닥상장법인협의회	기본	총6,805건	무료
국가인재데이터베이스 <http://hrdb.mopas.go.kr/indexs.html>	행정안전부	학력/경력/자격면허/상훈/저서/논문 등	-	무료
로마켓 인물정보 <http://www.lawmarket.co.kr/people/home/people_help.asp>	로마켓아시아	학력 경력 등 기본사항/지적재산권, 영화/드라마 등	약50만건	유료/무료

나. 전문주제 인물데이터베이스

한국학술진흥재단과 한국과학재단의 ‘통합연구인력정보’는 학술분야를 대상으로 교수, 연구원, 대학원생 등을 포함 약 110,000여건의 정보를 구축하고 있다. 구축내용에는 기본정보, 학력, 경력, 전공, 활동, 연구실적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 데이터베이스는 연구자가 인터넷을 통해 직접 갱신하고 있으며, 입력된 정보의 사실 진위여부에 대한 확인과정은 거치지 않고 있다. 공개 데이터베이스와 비공개 데이터베이스로 구성되어 있으며, 공개 데이터베이스에는 E메일, 주소, 전화번호 일부를 제공하고 있다.

‘국내과학기술연구자정보’는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에서 과학기술분야 인력정보를 중심으로 구축한 인물데이터베이스이다. 등록대상은 연구소, 대학, 산업계 등에 종사하는 전문 인력이며, 구축 현황은 330,000건에 이른다. 구축내용은 기본 현황 정보로 전공, 최종 졸업학교, 소속기관, 연령, 학위 및 지역이 포함되고, 고급현황 정보에는 기관 및 인력구분별 인력분포를 포함하고 있다.

13) 중앙일보사, 조인스 인물정보, <http://people.joins.com> [인용 2008. 11. 5].

이하 국내 인물정보 사이트는 동일 날짜에 인용한 것임.

8 한국도서관·정보학회지(제39권 제4호)

이 데이터베이스는 국내 여러 기관에서 분산 구축 운영 중인 인력 데이터베이스를 연계하여 통합 메타데이터로 구축하고, 통합검색서비스 및 각종 현황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검색결과 중 상세데이터는 해당 기관의 시스템에 접속하여 출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요금은 무료이다.

이외에도 법조계, 과학기술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사회단체계 등의 다양한 데이터베이스가 제공되고 있다. 전문주제분야 인물데이터베이스서비스 현황은 <표 2>와 같다.

<표 2> 국내 전문주제 인물데이터베이스

계열	데이터베이스명	운영기관	주요 수록내용	구축규모	비고
학계	통합연구인력정보14 <http://rm2.kosef.re.kr/index.jsp>	한국학술진흥재단/ 한국과학재단	기본/학력/경력/전공/ 활동/수상/특허/논문 등	총 113,008건	무료
	BRICs Info 전문가데이터베이스 <www.bricsinfo.org/ bricsinfo/expert/expert_list.jsp?lid=ex>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사진/기본/학력/경력/ 논문발표사항	총 602건	무료
	교수인명록 <http://www.unn.net/UnivInfo/ProfessorpersonList.asp>	한국대학신문	기본/경력	총 47,465건	무료
법조계	법조인대관 <http://www.lawtimes.co.kr/Premium/ PremiumLawman/LawmanMain.aspx>	인터넷법률신문	사진/기본/학력/경력/ 가족/논문/저서	총 12,059건	유료
	법조인 정보 <http://www.oseo.com/people/index.asp>	오세오닷컴	기본/학력/경력/가족· 지인/상훈·저서·논문	-	유료
	대한변호사협회 회원현황 <http://www.koreanbar.or.kr/notice/02_08.asp>	대한변호사협회	사진/기본/학력/경력/ 개업구분	총 11,030건	무료
	법조인 데이터베이스 <http://www.lawmaul.com/lawyer/pan/>	로마을	사진/기본/직장/학력/ 약력	-	무료
과학 기술계	국가 R&D 참여인력 정보서비스 <http://hurims.ntis.go.kr/index.jsp>	교육과학기술부	기본/학력/경력/전공/ 활동/연구실적/수상/ 특허/논문발표	총 64,961건	무료
	국내과학기술연구자정보 <http://human.ndsl.kr/index.do>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기본/전공/학력/소속기 관/연령/학위 및 지역	약 33만건	무료
	여성과학기술인력데이터베이스 <http://www.kwse.or.kr/west/>	(사) 대한여성과학기술 술인회	학력/경력/전공/활동/ 연구실적/수상/특허/ 논문	총 8,943건	무료
	한국과학기술단체현황 <www.kofst.or.kr>	한국과학기술단체총연 합회	회원 학회 현황 및 책 입자연락처 수록	총 404건	무료
정치계	여성정치인데이터베이스 <http://www.womenvoters.or.kr/03/03_04.asp>	(사) 한국여성유권자연맹	사진/기본/소속/학력/ 경력	총 226건	무료
언론계	언론인명정보 <http://www.kpf.or.kr/data/data_ people_search.php>	한국언론재단	기본/학력/경력	총 26,030건	무료
변리사	대한변리사회 회원데이터베이스 <http://www.kpaa.or.kr/www/ab8.php>	대한변리사회	사진/기본	-	무료
문화 예술계	부천문화예술인 데이터베이스 <http://lib.bcf.or.kr/>	부천문화예술정보도서 관 다감	사진/기본정보/예술 관 및 작품성향/수상 경력/공연/저서논문	-	무료
	제주예술인 데이터베이스 <http://jejuart.net/artist/>	미술포탈 아트인닷컴	사진/이름/경력/상훈/ 작품이미지	총 680건	무료
사회 단체계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회원 데이터베이스 <http://www.civilnet.net/member.php>	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	단체명/전화/팩스/홈 페이지/전자우편주소	총 448건	무료

14) 한국과학재단. 통합연구인력정보시스템, <http://rm2.kosef.re.kr/index.jsp> [인용 2008. 11.5].
이하 국내 전문주제 인물정보 사이트는 동일 날짜에 인용한 것임.

Ⅲ. 인물데이터베이스의 구축 및 검색방법 분석

1. 수록정보

국내 인물정보데이터베이스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언론사 인물정보의 수록정보는 대동소이하다. JOINS는 정관계, 법조계, 관계, 교육계, 경제계, 군인, 언론계, 문화예술인, 연예인, 의료인, 시민단체인, 학술인, 전문직업인을 망라해서 포함하고 있으나 상대적으로 연예인의 규모는 적다.

조선일보의 경우도 수록 분야는 정계, 관계, 교육계, 재계, 법조계, 언론계, 문화계, 스포츠계 등 사회 전 분야의 주요 인사들이 포함되어 있다. 동아일보 인물데이터베이스는 정치, 경제, 사회, 문화, 스포츠 등의 전문 인력과 역사인물 약 30,000건의 학력, 경력, 상훈, 가족사항 등 다양한 정보가 사진 이미지와 함께 제공되고 있다. 연합뉴스의 인물데이터베이스도 정관계, 대학, 금융, 법조, 군인, 언론, 문화예술, 연예, 의료인 등의 전문 인력을 대상으로 하는 종합 인물데이터베이스이다.

한국경제신문의 인물데이터베이스는 경제계 인사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재계의 임원급 이상, 경제관련 부처의 과장급 이상, 정계의 광역단체장 이상을 포함하여 약 30만 건의 데이터를 구축하고 있으며, 디지털타임스의 IT PEOPLE은 정보통신분야 인사를 대상으로 약 13만 건의 인물정보를 구축하고 있다. 등록 대상으로는 정보통신, 멀티미디어, 전기, 전자, 기계, 통신업체와 경제인, 벤처기업인, 교수, 공무원, 연구원 등 국내 IT분야 주요인사이다.

대부분의 국내 인물데이터베이스에서 수록하고 있는 내용은 대동소이 하지만 한국경제신문이나 IT PEOPLE은 특화된 인물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있다.

2. 프로파일 등록 방법 및 내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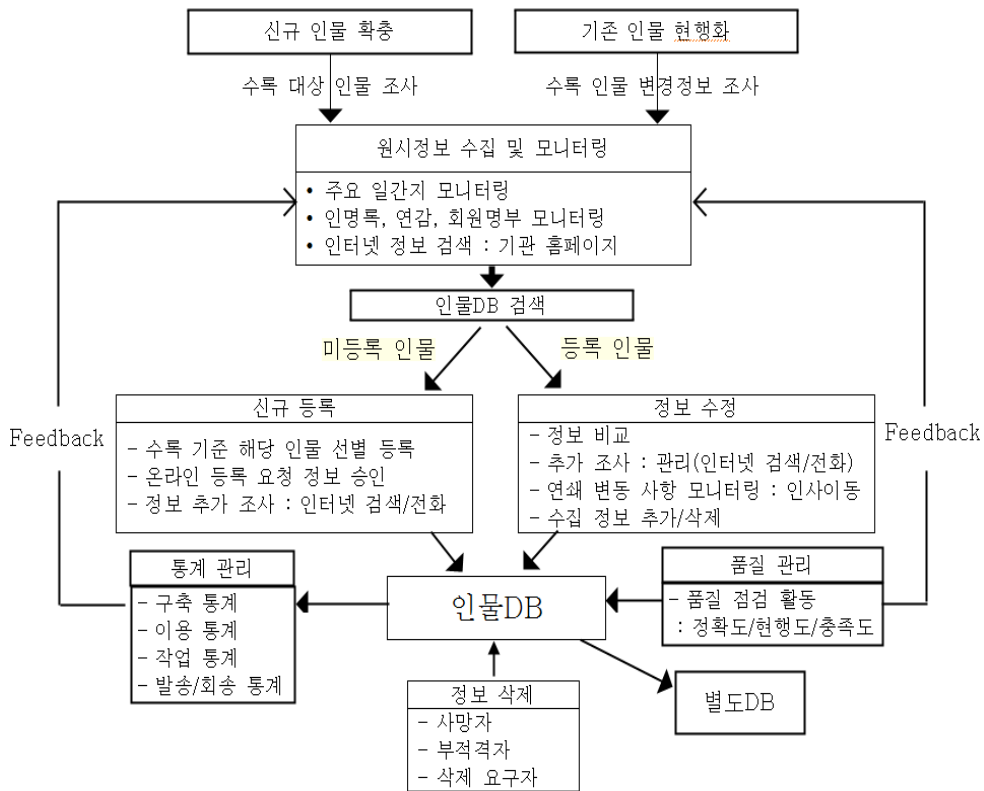
가. 프로파일 등록 및 수정

인물데이터베이스구축과정의 첫 단계인 프로파일 등록 방법은 크게 4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데이터베이스 구축 업체에서 수록 대상인물을 선정한 후 본인에게 우편을 발송하여, 당사가 가 프로파일을 작성해 오면 그것을 파일에 입력하는 가장 기본적이고 원시적인 방법이다. 두 번째는 인터넷 인물정보 웹페이지에서 인물을 등록하게 한 후 등록된 정보를 구축업체에서 내용을 확인한 후 등록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도 미리 작성된 워크시트 파일을 이용자가 작성한 후 첨부 메일로 발송하는 방식이다. 세 번째는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HTML로 직접 작성하는 방식으로 디지털 방식의 가장 효율적인 방식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대부분의 인물데이터베이스 구축회사에서는 아직도 첫 번째나 두 번째 방식을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등록기준에 맞는 인물일 경우에도 많은 경우 본인이 직접 시트를 작성해서 보내주거나 데이터를 입력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네 번째는 한국학술진흥재단의 경우처럼 연구자 정보를 본인이 직접 작성하게 하는 인물데이터베이스도 있다. 그러나 이 경우는 연구자 본인이 자신의 데이터를 입력하지 않으면 연구비 수혜 등에서 불이익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당사자 본인이 입력한다.

인물데이터베이스 신규 입력자를 위한 원시정보의 확보 방법은 일반적으로 인명사전이나 신문 기사를 중심으로 대상 인물을 선정한 후 본인에게 DM을 발송하여 본인이 작성한 원시 데이터를 데이터베이스에 입력하는 것으로 시작한다. 일반적인 인물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 구축 체계도는 <그림 1>과 같다.



<그림 1> 인물데이터베이스구축 체계도

<그림 1>에서 볼 수 있듯이 인물정보 구축은 크게 신규 입력과 기존 인물 현행화 즉, 데이터 갱신으로 나누어진다. 수록대상인물이나 수록인물 갱신정보를 조사한 후 원시정보수집과 모니터링

을 한다. 모니터링에는 일간신문과 인명록, 연감, 회원명부, 그리고 인터넷을 이용한다. 인물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한 후 미등록 인물일 경우는 인물 선별과정을 거쳐, 등록 요청을 하고 입력되거나 보내온 정보를 승인하고, 필요한 정보는 추가시킨다. 등록 인물도 같은 과정을 거친다. 이러한 과정을 계속적으로 피드백하면서 인물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나간다.

프로파일 등록 방법은 이전에는 본인이 직접 시트를 작성해서 인물데이터베이스구축회사로 보내는 방식을 취했지만 인터넷 사용이 보편화된 후로 점차 본인이 직접 웹에서 입력하는 방식으로 변하고 있다.

중앙 JOINS는 웹상에서 간단한 정보를 입력한 후 인물정보에 등재될 자격을 가진 사람에 한하여 이메일 팩스를 이용한 프로필 등록을 하고 있다. 조선일보의 경우도 전화, 이메일, 팩스, 우편을 이용하여 프로필 등록을 하도록 하고 있다. 연합뉴스의 경우도 웹에서 인물을 등록한 후 프로파일 양식을 다운로드하여 이메일, 팩스, 우편을 이용한다.

그러나 동아일보와 로마켓은 웹에서 직접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 경우 보다 다양한 프로파일을 구축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일보의 경우는 본인이 입력하지 않아도 입력이 가능하지만, 로마켓은 타인의 입력을 방지하기 위한 방법으로 본인인증을 핸드폰이나 공인인증서로 확인 후 프로필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규 등록은 JOINS의 경우 인물정보 홈페이지에서 데이터베이스 등록 신청과 등록정보 수정을 요청할 수 있다. 수정 요청 시 홈페이지에서 등록된 인물 본인이 JOINS ID와 주민등록번호로 로그인한 뒤 본인의 정보를 수정할 수 있다. 수정 요청된 정보는 데이터베이스 운영자 관리자의 승인 후 24시간 이내에 최종 등록 서비스된다. 요청 방법은 이외에도 전화나 팩스를 이용할 수 있으며, 우편과 전자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인물에 대한 추천은 홈페이지 추천 란에서 가능하며 추천된 인물은 내부검토를 거친 후 자체 선정기준에 부합할 경우 추가로 수집된 정보와 함께 데이터베이스에 등록된다.

조선일보의 경우에는 본인 정보의 신규 홈페이지의 안내방법에 따라 프로필과 사진을 보내면 본사의 인물정보 수록기준에 적합할 경우 수록한다. 기존에 수록된 인물정보 내용을 수정하거나 추가하고 싶은 경우에는 전화, 이메일, 팩스, 우편 등의 방법을 통하여 변경된 내용을 보내면 담당자의 확인 후, 즉시 반영된다. 또한 수록된 본인정보를 확인하고 싶은 경우에는 본인정보의 무료 조회기능을 추가할 수 있도록 마련하고 있다.

동아일보의 경우는 웹을 통하여 프로파일 내용을 직접 입력을 하도록 하여 단순히 정의된 항목에만 입력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로마켓에서는 출생지 성별, 전 현 직장, 학교 등의 입력란에 검색으로 입력하여 바로 코드화 되도록 하였다. 또한 웹 입력으로 로마켓의 프로필은 직업 대분류에서도 다시 세분화된 소분류 등으로 아주 자세한 사항까지 입력하도록 프로필에 나타내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모든 프로필 등록에 나름대로의 기준을 가지고 있었으며, 어느 정도의 기준에 부합

하는 이에 한하여 등재해 주고 있다.

네이버의 경우는 인물 프로필에 등록을 원하는 인물의 정보를 누구나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 이때 사진을 첨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포털 사이트의 특성상 자신의 회사에서 인물 프로필을 만들기 보다는 간단한 등록 사항을 확인 한 후 간단한 개인 프로필을 작성하고, 상세한 정보를 원하는 이용자는 필요할 경우 타 인물데이터베이스로 연결해 주고 있다. 그러나 이 경우 본인이 직접 작성하지 않는 타인의 데이터와 사진 등 이미지 데이터에 대한 저작권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입력방법은 다양하게 제공하고 있었으나 가장 좋은 방법은 웹으로 입력하는 방식일 것이다. 이 경우 비용적인 면에서 많은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우리의 정서상 본인이 직접 자신의 프로파일을 입력하는데 대한 거부감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웹 입력은 간단하고 편리한 방법이지만, 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컴퓨터를 능숙하게 다루지 못하는 경우도 많고, 인터넷에 대한 거부감이 가진 인사들도 있기 때문에 팩스나 전화, 우편, 이메일 등 다양한 매체를 이용하여 프로필을 등재할 수 있도록 하는 방법도 함께 열어두어야 할 것이다.

〈표 3〉 프로파일 등록 방법

검색요소	JOINS	조선	동아	연합	네이버	로마켓
우 편	○	○		○	○	
전 화	○	○			○	
팩 스	○	○		○		
e메일		○		○		
웹입력			○			○
본인 등록	○	○	○	○	○	○
지인 등록			○	○	○	

프로파일 수정 방법은 관리회사에서 이루어지는 방법과 본인이 직접 데이터베이스에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다. 인물데이터베이스관리회사에서 수정하는 것은 신문이나 잡지 등에서 인사란을 주요 정보원으로 인사가 발생할 때마다 수정이 이루어진다. 대부분의 정부기관이나 기업 인사는 신문 지면상으로 확인이 가능하지만, 신문 지면상에 등장하지 않는 경우는 어려움이 있다.

본인이 직접 수정하는 경우는 본인이 직접 해당 인물데이터베이스에 접속해서 수정하는 방법이 있다. 이 경우 이론적으로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본인이 직접 해당정보를 수정하는 경우는 많지 않다. 일부 데이터베이스에서는 본인이 수정을 하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경우도 있다.

나. 프로파일 항목

JOINS 인물데이터베이스 구성은 기본정보, 학력, 경력, 가족/지인, 활동, 인물탐구 등 전체 56개

항목에 이른다. 기본정보에는 성별, 혈액형, 별칭, 이메일, 개인 URL, 본관, 병역사항, 종교, 자녀수, 생활신조, 자격면허, 취미 항목이 있고, 학력정보에는 입학년도-졸업년도, 출신학교 및 전공을 포함하고 있다. 경력에는 기관경력, 가족/지인에는 관계, 이름, 생년월일, 직장 및 직위를 포함하고 있으며, 활동에는 저서와 상훈이 포함된다. 그리고 인물탐구 항목에는 신문에 기고한 기사의 제목과 출처, 게재일이 포함되어 있다.

조선일보의 인물데이터베이스 구성은 인물명, 인물사진, 생년월일, 출생지, 현직기관, 부서, 직위 등 기본사항과 학력, 경력 등 이력사항, 가족관계, 지인관계, 활동내용, 관련기사의 부가사항 등 인물관련 주요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단 본인이 공개를 원치 않는 내용이나 자택주소, 자택전화번호 등과 같은 개인정보는 사생활 보호차원에서 공개되지 않는다.

동아일보는 학력, 경력, 상훈, 가족사항 등 다양한 정보가 사진 이미지와 함께 제공되고 있다. 동아일보 인물데이터베이스는 전직과 현직 구분이 확실하고, 동아닷컴 회원으로 가입하면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

연합뉴스의 구축 내용으로는 사진과 성명(영문 포함), 호, 출생지, 성별, 직장(직책), 생몰년월일, 학력, 경력, 상벌, 저서, 번역, 종교 등을 포함하고 있다. 한국경제신문은 사진, 성명, 현직, 출신, 상훈, 저서, 학력, 겸직, 주요경력, 인물 동정을 포함하고 있다.

이제까지 살펴 본 인물데이터베이스에는 성명(한자, 영문 포함), 호, 성별, 취미, 종교, 학력, 경력, 가족관계, 교우관계, 저서, 상훈, 주량, 흡연량을 공통적으로 압력하고 있다. 인물정보에 수록된 프로필 항목은 <표 4>와 같다.

개인 정보 입력 항목은 한글, 영문, 한자이름, 호, 성별을 포함되어 유사하지만, 로마켓은 주민등록번호를 요구하지 않고 있다. 물론 대부분의 업체에서도 주민등록번호는 공개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지만, 개인정보보호를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를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 연합뉴스를 제외한 나머지 업체는 본적을 요구하고 있으며, JOINS와 조선일보는 원적까지를 요구하고 있다. 모든 업체는 사진을 필수 사항으로 요구하고 있고, 로마켓은 동영상도 올릴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사망관련은 JOINS가 사망일뿐만 아니라 사인, 장례일, 발인장소까지를 상세하게 입력하고 있다.

개인의 연락처 정보에서는 직장 주소, 전화번호, 팩스 까지 입력하도록 하고 있으며, 로마켓을 제외하고는 집주소와 전화번호도 요구하고 있다. 또한 5개 기관이 개인 홈페이지를 등록하도록 하고 있으며, 동아일보와 로마켓은 블로그까지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것은 웹으로 직접 입력하도록 하였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현재 인물 서비스에서는 개인의 홈페이지와 블로그를 직접연결해서 서비스 하고 있지 않다. 네이버는 인물프로필에 등록을 원하는 인물의 정보를 기재해 달라는 웹페이지에 사진과 인물명, 생년월일, 직업, 경력사항만을 올리도록 하고 있다.

〈표 4〉 인물정보 프로파일 항목

		동아	연합	JOINS	조선	로마켓
기본사항	공통항목	성명(국문, 영문, 한자), 호, 성별				
	주민번호	○	○	○	○	
	출생일		○	○	○	○
	출생지	○		○	○	○
	본관	○		○	○	○
	원적			○	○	
	본적	○		○	○	○
	소개					○
	사진	○	○	○	○	○
동영상					○	
사망관련	사망일	○	○	○	○	
	사인			○	○	
	장례일			○		
	발인장소			○		
	장지	○		○	○	
연락처	공통항목	직업, 직장(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팩스), 휴대폰, 이메일, 홈페이지				
	자택주소	직장(주소, 전화번호, 우편번호, 팩스)				
	블로그	○				○
학력및 경력	공통항목	중, 고, 대학, 대학원 및 경력, 저서, 상훈				
	병력사항		○	○	○	○
	소속단체			○	○	○
	명예학위		○			
	자격면허	○	○	○		○
	외국어		○		○	
기타개인정보	공통사항	가족 및 교우관계, 취미, 종교, 주량, 흡연량				
	결혼기념일			○	○	○
	신장/몸무게	○		○	○	○
	혈액형	○		○	○	○
	특기	○	○	○	○	
	운동		○		○	
	가훈	○	○	○	○	
	좌우명	○	○	○	○	
	존경하는 인물		○		○	
	기억에남는책	○	○		○	○
기억에남는 영화	○	○		○	○	
기호품	선호음식	○	○		○	○
	애창곡	○	○		○	○
	좋아하는 연예인	○			○	
	좋아하는 술				○	
	좋아하는 색깔				○	
	좋아하는 차				○	
	좋아하는 꽃				○	
	스트레스 해소				○	
	애장품				○	
	건강관리				○	
기호품			○	○		

3. 검색 방법

가. 검색 항목

인물검색 시 사용되는 기본적 검색도구인 검색창과 상세검색창 이용항목에서는 큰 차이점을 보이지는 않았으나 사이트별 제공하는 것은 조금씩의 차이점을 보이고 있다.

JOINS에서는 CEO, 법조인, 공무원 등의 탭을 따로 두었고, 인맥관계도, 직업별, 인사이동별, 출신학교별, 출신지역별 검색을 따로 두어 인물간의 관련을 지어 두었으며, 법조인 탭에서는 활동분야별 변호사검색이라는 별도의 디렉토리를 두고, 중앙일보의 인물관련기사와 연계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JOINS는 중국인물정보와 마르퀴스 후즈후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중국인물정보는 직업별, 출신학교별, 지역별 인물의 카테고리 분류가 되어 있으며 자료 또한 중국신화통신사의 인물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아 서비스하고 있다. 마르퀴스 후즈후에서는 세계적인 인명사전인 후즈후 인더월드(Who's Who in the World)를 발간하고 있다. 후즈후 인더월드는 정치, 경제, 사회, 종교, 과학, 예술 등 각 분야에서 매년 세계적 인물 5만 여명을 선정, 프로필과 업적을 등재하고 있는데 이를 함께 서비스하고 있다.

검색방법으로는 카테고리 검색에서는 통합검색, 인물검색전체, 법조인물 검색, 중국인물 검색으로 나뉘어져 있으며, 검색조건에는 상세검색과 인사이동 검색이 있다. 검색항목에서는 이름, 소속기관, 부서, 직위, 직업, 출생지, 출신 고등학교, 출신 대학교, 출신 대학원, 생년월일로 검색할 수 있다.

조선일보에서는 JOINS보다는 세분화되고 전문적인 다각도의 검색이나 연관관계를 이용한 고리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조선일보의 인물검색은 세분화된 검색창을 두고 있으며, 뉴스와 이슈가 되는 인물들의 up&down이라는 창을 두어 유저들의 투표로 이슈인물의 순위를 매기는 메뉴가 있다.

검색방법에는 이름, 소속기관, 부서, 직위, 직업분류 코드에 의한 검색, 직업, 출생지, 출생년도, 출신학교, 경력으로 검색할 수 있으며, 직업분류코드에는 전체 검색과 정치인, 공무원, 법조인, 군인, 언론인, 기업인, 금융인, 교육자, 의료인, 문화예술인, 방송인, 연예인, 스포츠인, 종교인, 사회기관단체인, 전문직업인으로 구분해서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검색방법에서는 and or not과 절단검색(*) 등의 검색조건을 모두 사용할 수 있으며, 이름 검색은 한글, 영문, 아호, 본명, 별칭 등을 포함해서 검색 할 수 있다. 직업으로 검색할 경우에는 정치인·공무원 등 직업군으로 검색과 교수, 변호사, 가수 등 구체적인 직업으로 검색할 수 있다. 또한 출생지는 정식명칭이 아닌 줄임말로 검색이 가능하며, 출신학교명 검색시에 초등학교는 정식명칭으로만 검색이 가능하지만, 중, 고, 대학명은 줄임말로도 검색할 수 있다. 기관명, 회사명, 정당명 등 소속기관명은 정식명칭과 줄임 명칭이 동의어로 처리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명칭으로도 검색할 수 있다.

동아일보에서는 상세검색 탭에서 전문분야의 세분화를 통한 검색을 이용 할 수 있는 메뉴가 제공되고 있어 분야별 세부인물을 검색하는데 도움을 주고 있다. 동아일보에서는 역사인물, 주간 배

스트 클릭, 역대 부처장관, 화제의 그룹, 모임 등을 제공하고 있으며 역대 수상자, 인사·부고·동정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동아일보는 서비스하는 각 탭 마다 상세한 정보제공을 위한 하위분류가 제공하지 않아 통합 검색시 관련인물을 단순히 나열함으로서 다시 한글 자모순으로 찾아야하는 불편이 있다. 검색은 일반검색과 상세검색으로 구분되어 있으며, 별도로 역사인물데이터베이스와 역대 수상자 데이터베이스를 보유하고 있다.

연합뉴스에서는 직업별, 고등학교별, 대학교별, 출생지별, 성/본관별, 역대 국회의원, 국회의원으로 검색할 수 있는 탭이 마련되어있다. 검색창을 중심에 상세하게 나열하고 있어 자세한 정보를 찾기 위해 상세검색창을 찾아야하는 불편함을 줄여주는 디자인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나 메인사이트에서 인물검색 탭이 현재 연결되어 있지 않고 네이버에서 연결된 탭으로만 연결되어 있다는 점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이 단점이라 할 수 있겠다.

네이버는 검색엔진의 특징을 가장 잘 살려 인물검색을 서비스하고 있다. 인물검색순위와 기존 분류된 디렉터리에 따른 인물 디렉터리의 구성 등으로 인물정보를 지원하고 있으며 직업 카테고리별, 출신학교별 검색과 인물검색 순위에 따른 각 분야별 인물들을 실시간 지원하는 서비스가 특징이라고 할 수 있다. 네이버 인물검색은 단순 기본정보를 제공하고 조선닷컴과 JOINS 연합뉴스에서 인물데이터베이스를 제공받아 유료로 더 자세한 정보를 이용 할 수 있도록 링크시켜주고 있으며 직업군, 출신학교군 등 자세한 카테고리별 나열로 검색하기 쉽도록 되어 있다. 인물 검색 요소를 정리하면 <표 5>와 같다.

<표 5> 인물 검색 요소

검색 요소	JOINS	조선	동아	연합	네이버	로마켓
이름	○	○	○	○	○	○
근무처	소속기관	○	○	○	○	
	부서	○	○	○		
	직위	○	○	○	○	
	근무지					○
기본사항	출생지(출신지)	○	○	○	○	○
	출생(생년)월일	○	○	○	○	
	본관				○	
	종교		○		○	
학력	출신학교		○	○	○	
	고등학교	○			○(년도)	○
	대학교	○			○(년도)	○
	대학원	○				○
	전문분야			○		
	학과(전공)				○	○
	해외대학					○
	유학국가					○
경력		○	○			
직업	○	○		○	○	
정렬방법			○	○		

나. 직업 검색 인터페이스

한편, 검색창 내에서 직업 구분을 살펴보면 <표 6>에서 제시된 것과 같다. 검색창에서 직업을 구분해서 검색하는 것은 검색자 입장에서는 효과적인 검색이 될 수 있다.

조선일보와 JOINS, 네이버에서는 큰 직업군을 잘 세분화 하여 그 아래 다시 세분화 하는 방법을 택하고 있다. 동아일보는 정치인이 있음에도 국회의원을 별도로 두어 구분이 모호하지만, 의사와 한의사를 구분해서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전체적인 면에서는 직업구분이 애매한 것이 많다. 정치인을 정관계인, 정치인, 국회의원, 공무원으로 대별해 본다면, JOINS와 조선, 연합 인물데이터베이스는 정치인과 공무원으로 대별하고 있고, 동아일보 인물데이터베이스는 정치인과 국회의원으로 구분하고 있다. 경제인의 경우도 네이버에서는 경제기업인과 금융인으로, 동아일보와 로마켓 인물데이터베이스는 경제인으로, JOINS와 조선, 연합 인물데이터베이스는 기업인과 금융인으로 구분하는 등 직업 구분이 모호한 예가 많다.

앞에서 본 바와 같이 각 사이트에서는 인물정보를 나름대로의 방법으로 서비스하고 있으나, 이용자들의 편의성 측면에서 다양한 연결고리를 잘 활용한 JOINS의 인물검색이 검색 측면에서 다양한 측면을 제시하며 가장 진화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할 수 있겠다.

<표 6> 검색창 내 직업별 구분

직업세부	JOINS	조 선	동 아	연 합	네이버	로마켓
정관계인	정관계인					○
	정치인	○	○	○	○	
	국회의원			○		
	공무원	○	○		○	
경제인	경제기업인				○	
	경제인			○		○
	기업인	○	○		○	
	금융인	○	○		○	
법조인	○	○	○	○	○	○
군 인	○	○		○	○	○
언론인	○	○	○	○	○	○
종교인	○	○		○	○	○
교육자	교육연구학술인					○
	교육자	○	○		○	
	연구학술인				○	○
	대학교수			○		
	교 사			○		
	연구인	○				
의료인	의료인	○	○		○	
	의 사			○		
	한의사			○		

문화예술인	문화예술인	○	○		○	○	○
	방송인		○				
	대중문화연예인						○
	연예인	○	○	○		○	
	스포츠인	○	○	○	○	○	○
	작가			○			
사회단체인	시민사회운동인						○
	사회기관단체인		○		○		
	NGO인	○					
	사회복지단체인					○	
역사인물, 이슈인물				○		○	
전문직업인		○	○		○	○	○

다. 부가적 검색 방법

JOINS와 로마켓은 인물검색 후 관련탐색으로 해당인물과 관련된 인물을 볼 수 있도록 제공하는 서비스도 제공되고 있다. 프로필 등록 시 비교적 상세한 세부사항까지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데이터의 정리가 보다 체계적으로 보이는 로마켓이 이 서비스를 더 잘 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로마켓 서비스의 경우 사람들과의 관계에 일정의 포인트를 적용하여 주위의 인물을 찾아주는데 연고가 같거나 관계있는 정보들의 종합으로 주변 인물을 탐색하는데 더욱 도움을 주고 있다. 이러한 서비스는 인물탐색에 많은 도움을 주지만 이러한 인맥 연결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서는 인물들의 많은 프로필이 필요하므로 많은 프로필이 등록되지 않은 사람과는 연결시킬 수 없는 단점이 있다.

IV. 인물데이터베이스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문제점

이상에서 살펴본 우리나라 인물데이터베이스서비스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인물의 편중이다. 초기 인물데이터베이스는 정관계 인사, 기업인, 언론인, 교육자 등 소위 사회 지도층 인사를 중심으로 구축되었다. 그러나 인터넷 보편화 이후 일반 이용자들은 자신이 관심을 갖고 있는 연예인, 스포츠 스타 같은 인물에 더 많은 관심을 갖는다. 물론 이들에 관한 정보가 인터넷에 많이 있지만, 권위 있는 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내용과 달리 정보의 신뢰도가 떨어지는 한계가 있다.

둘째, 인물정보 프로 파일의 등록에 관한 문제이다. 초기의 인물정보는 등록 대상인물을 선정하여 우편으로 직접 당사자에게 보냈다. 그러면 본인이 작성해 준 데이터를 확인하여 데이터베이스로

구축하였다. 따라서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었다. 우편에서 팩스로, 그리고 E메일로 변화하고 있는 추세에 있지만 아직도 많은 기관에서 인물 시트를 작성하게 한다. 최근 일부 업체에서 인터넷으로 입력하게 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나 아직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이력을 내놓기를 꺼려하는 분위기도 여전히 남아 있고, 개인이 직접 입력하는 데이터의 신뢰도 문제도 해결해야 할 과제이다.

셋째, 인물 데이터의 갱신에 관한 문제이다. 웹 기반 인물데이터베이스의 성능을 결정하는 주요 요소 중의 하나는 최신성이다. 최신성은 새로운 혹은 변경된 정보를 얼마나 자주 갱신하고 있는지를 의미한다.¹⁵⁾ 데이터의 갱신에 가장 우선적인 방법은 신문에 나타나는 인사이동을 참고 하는 것이다. 그러나 인사이동에 등장하지 않는 내용이 많기 때문에 이것만으로는 절대 부족하다. 최근에는 인물정보업체에서 본인이 직접 자신의 정보를 갱신하는 방법을 도입하고 있지만, 호응도가 높지 않은 편이다.

넷째, 인물 프로파일의 문제이다. 언론사에서 구축하는 인물 프로파일은 비록 약간의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 대동소이하다. 현재 입력하는 방식은 초기의 입력시트 방식을 그대로 이용하기 때문에 더 많은 정보를 입력할 수 없다. 인물정보에 대한 보다 다양하고 많은 정보를 수록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검색의 문제이다. 인물정보 이용자는 무엇보다도 자신이 알고자 하는 인물을 쉽고, 빠르고 편리하게 검색할 수 있어야 한다. 단순히 인명만을 입력해서 검색하는 방법에서 점차 조합검색이나 조건검색이 추가되고 있기는 하지만 아직도 문제가 있다. 예를 들어 고등학교명 검색은 가능하게 하고 있는 경우는 많이 있으나 어떤 지역의 고등학교 출신자를 검색하는 등의 방법은 없다. 이것은 인물 프로파일의 등록 문제와도 관련이 있는 문제이다. 또한 직업으로 검색하는 경우에도 데이터베이스마다 직업구분이 모호하여 혼란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여섯째, 개인정보 보호와 저작권의 문제이다. 데이터가 디지털화 되고 인터넷을 통해 서비스 된다는 의미는 개인정보와 저작권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다고 볼 수도 있다. 기본적으로 인물데이터베이스는 개인의 동의하에 이루어지는 것이고,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비공개가 원칙이다. 그러나 해킹 등을 고려할 때 개인정보 유출이 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개인 프로파일에는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개인정보는 입력하지 않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또한 네이버와 같은 포털 사이트에서는 타인의 정보와 사진을 입력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 문제로 지적될 수 있을 것이다.

한편, 데이터를 구축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데이터를 직접 구축하는 것보다 데이터 검색비용을 제공하고 외부 데이터를 일괄 수집하는 것이 훨씬 저렴할 수 있다. 인물데이터베이스를 검색하는 비용이 대개 1,000원이므로 30만 건의 인물정보를 카피하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3억 정도이다. 이 경우 외부 데이터를 도입한다면 데이터를 재입력하는 비용을 포함하더라도 훨씬 적은 비용으로 구축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사회문제가 된 법률정보 전문 사이트인 '로마켓'이 범조인검색서비스를

15) 박준식, 박경호, 전개논문, p.190.

제공하면서 법률신문의 법조인대관 자료를 무단으로 도용¹⁶⁾해 왔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이것은 로마켓에서 제공하는 데이터베이스는 법률신문의 법조인대관의 구성항목 대부분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내용과 배열 역시 동일 또는 유사하며, 사진자료 96.3%나 동일하다고 판결을 내린 것이다. 이와 같은 인터넷 서비스 인물정보의 저작권 문제는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

2. 개선방안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국내 인물데이터베이스는 많은 이용자가 검색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양질의 정보를 수록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노력이 요구된다. 앞에서 살펴본 인물데이터베이스의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대상 인물의 확대와 차별화가 필요하다. 현재 서비스 되고 있는 언론사의 인물정보는 수록 범위와 내용이 대동소이하다. 따라서 보다 차별화된 인물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 또한 서비스 초기의 정관계 인사를 중심으로 기업에 서비스하던 인물데이터베이스에서 벗어나 보다 다양한 이용자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보다 다양한 인물정보의 확충이 필요하다.

둘째, 인물 프로파일 등록과 갱신을 당사자가 직접 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물론, 자신을 나타내기 꺼려하는 우리나라 사람의 정서를 고려하여 여러 가지 유인책을 제시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직접 등록이나 갱신을 수행한 사람에게는 인센티브를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셋째, 인물 프로파일의 등록에 관한 문제로, 기존의 인쇄형 시트에 탈피하여 웹상에서 직접 작성할 수 있는 포맷을 개발하여야 할 것이다.

넷째, 새로운 검색 기능의 도입이 필요하다. 입력된 정보가 단지 이용자의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단계를 넘어 입력 데이터 자체 내용을 이용한 검색기능이 필요할 것이다. 또한 단순히 어떤 개인의 정보를 검색하는데 그치지 않고 구축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인맥관계나 특정 인물과의 관련도 검색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섯째, 개인정보보호와 저작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은 정보의 구축이나 전화번호 등과 같은 개인 신상정보는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물데이터베이스의 데이터의 무단 이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타 분야의 데이터베이스와 마찬가지로 저작권 침해에 대한 대비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인물데이터베이스의 보다 효율적인 구축과 서비스를 위해서는 시소러스의 용어관계와 속성 관계를 활용하면 검색 효율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이다. 시소러스는 용어간의 관계를 연결시켜 색인과 탐색에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한 통제어휘집이다. 초기의 시소러스는 용어의 동등관계, 계층관계, 관련관계를 연결시킨 정도로 만족했다. 그러나 시소러스의 온톨로지화를

16) 김소영, "법원, '로마켓'의 법조인 검색서비스에 제동," 인터넷법률신문, 2008. 7. 24일자.

위해서는 기본 용어관계 뿐만 아니라 2차 용어관계, 더 나아가 용어의 속성 관계를 정의하여 새로운 정보검색에 대응하고 있다. 시소러스의 속성 관계는 주로 인명, 지명, 기관/단체명, 작품(문학, 음악, 예술), 상품과 같은 고유명사가 대상이 되지만 시소러스에 등록된 모든 용어는 속성을 가질 수 있다.¹⁷⁾

예컨대 성명의 입력에서 관칭이나 별칭, 호, 필명 등의 관계를 동등관계로 엮어서 참조 정보를 제공하거나 출신지 등을 계층관계로 엮게 되면 검색에서 재현율과 정도율을 조절할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더 나아가 속성 관계로 관계를 연결한다면 데이터의 입력이나 보다 다양한 검색방법을 활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인명의 경우 개인의 기본사항(이름, 생년월일, 출생지, 본관, 신체관련정보, 취미 등), 현직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작품사항, 가족사항, 활동사항, 취미사항, 사망사항 등 얼마든지 세분할 수 있을 것이다.¹⁸⁾ 인물데이터베이스에도 이러한 시소러스의 용어관계와 속성 관계를 활용하면 검색 효율의 향상을 도모할 수 있다.

인물정보에 시소러스를 이용하는 방법은 1차 용어관계로 인물의 이형이칭 등을 동등관계(UF)로 정의하여 어떤 용어로 검색하더라도 검색이 가능할 수 있도록 하고, 직업 구분이나 학교, 지역 등을 계층관계(BT/NT)를 맺어 관련 집단을 검색하는 방법을 도입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저술이나 작품, 공연 등을 관련관계(RT)로 연결한다면 관련저작물과 인물을 연결시킬 수 있는 도구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V. 결 론

우리나라에서 서비스되고 있는 인물데이터베이스 대부분은 인명사전 출판 후 데이터를 입력한 데이터베이스와 언론사에서 기사 작성에 도움을 주기 위해서 구축한 데이터베이스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그러나 최근 인터넷의 보편화와 인물정보의 요구 증가에 따라 새로운 형태의 인물정보데이터베이스가 증가하고 있다. 또한, 인터넷 포털의 확대로 포털 사이트에서 기본적인 자체 인물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전문 데이터베이스와 연결하는 서비스가 보편화되고 있다.

따라서 기존의 단순한 워크시트 입력방식에서 벗어나 보다 효과적인 데이터 입력과 검색이 이루어지고 있다. 특히 인터넷 포털에서는 기존의 인물 데이터 서비스 기관이 제공하던 인물 검색을 디렉터리 검색으로 바꾸거나 다양한 검색항목을 설정하여 이용자의 요구에 부응하고 있다. 그러나

17) 최석두 외, "대단위 우리말 온톨로지 구축을 위한 시소러스 개발," 정보관리학회지, 제23권, 제4호(2006. 12), p.161.

18) 이정연 외, "기초학문자료센터 메타데이터 설계 분석 및 온톨로지 적용 방안 연구," 한국문헌정보학회지, 제41권, 제2호(2007. 6), p.309.

인물데이터베이스구축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소요되는 대규모 집적 작업이므로 한꺼번에 모든 것을 해결하기는 어렵다고 생각된다.

보다 질 높은 인물데이터베이스를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수록 대상 인물의 확대와 차별화가 필요하다. 또한 인물 프로파일 등록과 갱신을 당사자가 직접 할 수 있는 포맷을 개발하여야 하고, 단순히 어떤 개인의 정보를 검색하는데 그치지 않고 여러 가지 조합방식을 도입할 필요가 있으며, 구축된 데이터를 중심으로 인맥관계나 관련도 검색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개인정보보호와 저작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 인물정보에 시소러스의 용어관계와 속성 관계를 도입한다면 보다 효율적인 데이터베이스 구축과 서비스를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여겨진다.

〈참고문헌은 각주로 대신함〉